광주공원 일대까지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확장

창립 10주년 맞은 광주문화재단 올해 주요 사업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 활성화
무등산권 인물 프로그램 강화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사업 진행
예술인 고충 처리 소통센터 마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올해 인근 광주공원 일대까지 미디어아트특화공간을 확장해 광주 역사문화명소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이 될 AMT(Art and Media Technology Center) 완공이 오는 10월로 예정되면서 일대가 미디어아트특화공간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지난해 광주공원 일대 14개 기관·단체 협약으로 시작한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를 매개로 올해도 광주향교-광주시민회관-미디어아트특화공간 등을 잇는 공동 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한다. 또한 문화재단에 있는 홀로그램극장, 미디어놀이터, 미디어아트338 등 6개 공간과 지난해 개관한 5G 실감체험공간 '스페이스 5G네'를 매개로 한 미디어아트 체험과 교육도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13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2021년 주요 사업들을 발표했다.

문화재단은 지난 10년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문화자산을 가꾸고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 전문서비스기관, 문화정책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재단은 온오프라인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을 얻은 기획 공연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음악여행'은 올해 8월 '빛고을뮤직페스티벌'로 이어진다. 아울러 공연과 강연이 결합된 '빛고을렉처콘서트',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초청 기획사업, 낭만파시대 음악을 주제로 한 월요콘서트, 재즈와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열린소극장 등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공연과 유튜브 영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전통문화관의 '무등풍류 뎐'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방법의 다각화를 꾀하고 무등산권 문화예술 인물을 조망해 온 특별기획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무등산을 배경으로 호방 최흥종, 석아 최원순, 의재 허백련, 오지호 화백 등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바 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계속된다.

이는 새로운 뉴노멀 예술환경 조성과 연계되는 핵심 사안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진행중인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야외공연창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 등 현장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예술인 50명과 기업·기관을 매칭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문화일자리지원사업도 지속 운영하며 올해는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 지원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뮤지컬 '광주'는 올해도 국내외 공연을 이어간다.

광주만의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사업도 집중한다. 지난해 전국투어를 마친 창작 뮤지컬 '광주'와 창작관현악곡 5·18 특별음악회는 올해도 국내외 공연을 이어가며,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지난해 유튜브 온라인 공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소규모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근대 광주의 사람들'을 주제로 온라인 개최한 '광주학콜로키움', 광주의 오래된 가게들을 주제로 한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다' 발간 등 광주문화자산구축사업도 장르와 영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중심의 연대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술인 소통센터를 마련해 전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며 예술인활동증명, 창작준비금신청 대행 등 예술인의 고충 처리와 창작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소속 16개 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아울러 도심재생, 생태환경 등 시민사회 이슈를 문화예술로 연계하고 기업과 예술을 잇는 문화 매세나 영역도 확장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독립·실험영화 조명

ACC, 31일까지 온라인 기획전

'결투' 스틸컷

'서울 7000'(1976), '섬'(1981), '결투'(1982), '파랑새'(1986)….

위에 열거한 작품은 한국 초창기 독립·실험영화다. 우리나라 독립영화 역사는 짧지만 단편과 소형영화들이 학생운동 등과 연계돼 제작됐다. 이후 90년대 대학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제도권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초창기 독립·실험영화를 재조명하는 온라인 특별기획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지난 1980년 '얄라셩' 이후 '서울영화집단'으로 넘어가던 시기의 작품과 자료를 모은 기획전을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얄라셩'은 서울대 공과대학 재학생이 지난 1980년에 결성한 한국 최초 대학영화동아리다. 이후 동아리 출신 회원들이 주축이 된 '서울영화집단'이 1982년부터 86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기획전은 얄라셩 회원들이 제작한 첫 번째 작품 '여럿 그리고 하나' 시나리오 전문과 자료 일부, 5편 작품 상영과 리뷰, 인터뷰 영상 등으로 구성했다. ACC 누리집과 기획전 누리집(www.yalashung-sfc.com)에서 감상이 가능하다.

작품은 박광수의 '섬'(11일), 문원립의 '결투'(18일), 홍기선· 이효인·이정하의 '파랑새'(25일) 순으로 6일 동안 한편씩 상영한다. 특히 '섬'과 '결투'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박광수·김홍준·문원립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일부 문헌에서만 볼 수 있는 기록을 생생한 증언으로 들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행동 시로 표현

이성자 작가 '기특한 생각' 펴내

영광 출신 이성자 동화작가가 동시집 '기특한 생각'(고래책방)을 펴냈다.

이성자 작가는 그동안 따뜻하고 정감어린 동시와 동화로 어린이를 만나왔다. 이번 동시집에도 어린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60여 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책 제목처럼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과 기특한 행동을 그린 시들이 읽는 재미를 준다.

"공부도 못하고/ 달리기는 더더욱 못하는/ 우리반 민규가 쓴 시예요// 이순신 장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종일 칼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서 계신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로지 나라 걱정/ 정말로 힘들겠다/ 이제는 긴 칼 내려놓고/ 가족들 만나/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표제시 '기특한 생각'은 민규라는 아이의 걱정이 담겨 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올려다보며 힘드니까 이제 칼 내려놓고 쉬기를 바란다. 어린이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깊은 생각의 표현이다.

어떤 아이는 땅속에서 주렁주렁 따라 나오는 고

구마를 보며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고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흐르는 물에도 등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시인은 특유의 관찰력으로 아이들의 기특함을 하나하나 잡아내고, 이를 아이들 마음에 맞는 작품으로 그려냈다.

박두순 시인은 "이 동시집은 기특한 생각이 가득 차려진 잔칫상이다. 기특한 생각이 숨 쉬고 있는 생각의 집, 생각의 밭, 생각의 숲이다"며 "어린이의 본래 마음인 맑고 바르고 착한 동심을 찾아내 보여준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이성자 동화작가는 명지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엉덩이에 뿔났다', '입안이 근질근질' 등과 동화집 '펭귄 날다!', '손가락 체온계'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대중 작 '以民爲天'

역대 정치인 작품·도자화 130여점 경매

에이옥션, 21일까지

에이옥션이 '도자화와 정(政)'을 주제로 특별한 경매를 마련한다. 역대 정치인들의 작품과 도자화 130여점을 선보이는 기획으로 오는 21일까지 경매가 진행된다.

이번 경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의 작품부터 조선시대 석파 이하응(흥선대원군), 춘암 이강(의친왕), 가혜 이방자(대한제국 황태자비), 회은 이구(대한제국 황태손) 등의 작품이 나왔다. 또 한승수, 김무성, 조순 등 역대 국회의원들이 도자기에 글을 쓴 작품 약 80여 점도 출품됐다. 이 작품들의 경매시작가는 10만원부터다.

이외에도 전문 화가들이 도자기에 그린, 도자화(陶瓷畵)도 출품됐다. 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유천 김화경, 박영선, 박성환, 이필언의 작품과 서예에서는 일중 김충현, 검여 유희강, 미당 서정주 등이 나왔다.

대표작품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민위천(以民爲天·백성을 소중히 여겨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음, 추정가 1000~2500만원)', 청전 이상범의 '산수'(추정가 150~300만원) 등이다. 경매는 21일 오후 2시 에이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마감된다. 응찰은 에이옥션에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매의 응찰 및 낙찰은 홈페이지(www.a-auction.co.kr)를 통해 이루어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마을 프로젝트 진행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사학과)은 오는 2월 24일까지 북구 노야온인문마을을 중심으로 2021년도 인문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모임을 유도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일상적 삶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신안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인문마을은 '제1막: 위치와 조건을 초월하는 접속'과 '제2막: 나를 더 깊고 넓게 알아가기'를 주제로 펼쳐지며 역사적 사건과의 연관지점 등을 중심으로 마을의 삶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